

특별기획

김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접수

김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5만1,133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43% 상승하였는데 읍도지역별로 상업지역 2%, 주거지역 5.4%, 녹지지역 5.7%, 관리지역 5.9%, 농림지역 5.7% 상승하였다.

김제시 도심자인 요촌동은 지가의 정체현상으로 상승폭이 다소 낮은 수준이나 검산지구내 아파트건설, 도로개발사업 등으로 검산동 등 일부 주거지역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지가 형평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31 ~ 6.30 (30일간)기간동안 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가 형성 요인 등 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법사랑 김제지구협의회  
선진시민의식향상 노력**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제시지구협의회(회장 홍종식)회원 20여명은 지난 27일 실내체육관 앞 행사장에서 선진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초질서 지키기와 친절한 시민들이 되기 위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김제시가 문화시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이웃만들기, 친절, 질서, 청결등의 시민의식 향상 운동이 각 사회단체에서 활발하게 이어져 시민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

법사랑위원 김제시지구협의회원들은 질서와 친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왠지 속스러워서 먼저 실천하기가 잘 안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실천하니 서로가 밝아지는 마음들을 주고 받는 것은 느낀다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불법광고 모니터단 운영

정읍시가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주요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과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니터단을 연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유동 광고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은 읍면동 지역주민 54명과 직원 27명과 총 8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출·퇴근이나 도보 시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유동 광고물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스마트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하게 되며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시는 5월 30일 시민 81명을 대상으로 식별방법과 신고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모니터단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가로수과 전봇대에 등에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이나 게릴라식으로 불법 게시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최근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중산마을에서 NH농협은행이 명예이장과 '명예주민'을 위촉하는 위촉식과 마을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전개

부안 중산마을서 NH농협 송수일 부장 ‘이장’으로 직원들은 ‘주민’으로 위촉

NH농협은행이 고품화 등으로 침체돼 가고 있는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펼쳤다. 최근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중산마을에서 송수일 NH농협은행 여신기획부장을 이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4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주민’으로 위촉하는 위촉식 및 마을주민과 간담회가 열렸다.

NH농협은행이 고품화 등으로 침체돼 가고 있는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펼쳤다. 최근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중산마을에서 송수일 NH농협은행 여신기획부장을 이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4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주민’으로 위촉하는 위촉식 및 마을주민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런 시점에서 농협이 새로운 도농협동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니 앞으로 농촌의 활력 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업 CEO나 단체장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을 ‘명예주민’으로 참여시켜 고품화 등으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또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 도농협동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려는 운동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센터, 로컬푸드 상품화 위한 협약 체결

정읍원에농협·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 맞잡아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정읍원에농협(조합장 손사신 이하 정읍원협), 정읍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병숙 이하 어린이 급식센터)가 로컬·드라이푸드 가공 상품화와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기술센터와 정읍원협, 어린이 급식센터는 지난달 31일 드라이푸드 가공 교육장에서 로컬·드라이푸드 가공 및 식생활 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을 가졌다. 기술센터는 “정읍원에농협에서 운영하는 드라이푸드 가공 사업장의 준공

과 함께 계절별 로컬푸드를 이용한 건강 식생활 실천 및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로컬푸드 이용 식생활 교육 및 계절별 향토음식 보급 ▲로컬푸드의 활용 체험 및 이벤트 추진 ▲로컬푸드의 드라이푸드 가공 상품화 및 건강음식 개발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1차 생산과 2차 가공 3차 체험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

업 활성화 시책 일환이기도 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입농산물 개방과 경기침체 속에 지역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 지역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농가에 도움을 주고 정읍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물론 건강향식 생활 실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정보 교류와 교육, 자문, 공동참여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위도면 무허가 수산물 채취 강력단속

어종보호·관광객 안전 확보

부안군 위도면이 허가받지 않은 임·수산물 채취와 쓰레기투기, 야영·취사행위 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위도면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위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확보, 어종보호 등을 위해 관내 모든 해안가에 대한 수산물 채취 및 쓰레기투기 등 해양오염행위와 야영·취사행위, 해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도면은 마을방음과 함께 파장급항, 여객선터미널, 주요 해안가

등에 현수막 15개소를 설치하고 금지행위를 중점 홍보하고 있으며 금지행위 적발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신경철 위도 면장은 “위도를 찾는 일부 관광객의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와 쓰레기투기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갯벌의 오염이 심화하고 해안가 등에서 무단야영·취사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위도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시장 김생기)와 청춘부보상(대표 백두현)은 이번 협약으로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의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청춘부보상과 관광 업무협약

7월 25일부터 4박 5일 간 관광홍보용 단체복과 이동편의 등 제공

정읍시(시장 김생기)와 청춘부보상(대표 백두현)은 지난달 31일 정읍시 관광홍보를 위한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7월 25일부터 4박 5일 간 청춘부보상측에 정읍 9경을 소재로 한 관광홍보용 단체복과 이동편의 등을 제공하고, 청춘부보상은 단체복을 입고 정읍 특산물 판매에 나선다.

양 측은 이를 통해 ‘관광자원과 특산물 홍보’의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청춘 부보상 개개인이 정읍 홍보대사가 되어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의미 깊은 대장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생기 시장은 “청춘부보상과 정읍 관광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협약을 계기로 내장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정읍의 명소를 전국에 알리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춘부보상측은 “자치단체와는 처음으로 정읍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장정을 진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학생들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정읍관광 홍보는 물론 넓고 활기찬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013년 첫 출발한 ‘청춘부보상 대장’은 내일로 세월즈, 기부가 접목된 신개념 국토대장정이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기차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지역특산물을 판매해 지역을 알리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가치와 청춘정신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1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3 | 750ml 1ea/12% | GIFT SET 4.4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5 | 375ml 5ea/13% | GIFT SET 6.6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7 | 375ml 2ea/13%

TEL : 063-564-9900  
www.gangsanwine.com